

5월의 안테나



2사람 모이면

3가지 의견

업계가 장기간 불황에 빠져들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묘안이 백출되고 있다.

그 중에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더욱 많은 것 같다.

더우기 업자들끼리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면 의견의 일치를 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현 양계업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생산을 줄이기 위하여 노계의 과감한 도태 ①

둘째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 홍보. 셋째 체화된 물량의 수출 등에 의하여 재고를 줄이는 방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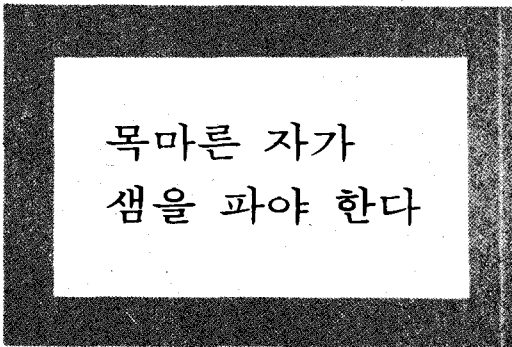
이런 방법 등을 실행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소요자금은 생산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기관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계란 수출이 일간지에 보도되고 일부 선적이 시작되자 계란값이 며칠동안 개당 5원이 인상되고 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또 소비 홍보를 위한 자금 마련에 노력하고, 환우계 도태가 이루어지자 좀처럼 헤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계란 값도 급속히 회복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많았던 해결 방안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끝나왔으며, 두 사람만 모여도 3가지 의견이 나와 우리 업계의 의견 통일이 어려웠던 것이 작년 10월부터의 불경기가 오게된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게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번 불황에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였던 것들이 업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란다.



이번 호에 양측가는 업계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담 기사를 실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양계업자들이 업계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지 않았거나, 가졌어도 실제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다. 양계업자들은 영세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성장하여 왔고 양계산물만은 자급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축산

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양계업계는 79년 후반기 부터 큰 시련을 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새로운 기술과 지혜로운 경영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10년전의 양계 형태에서 다만 규모만 커졌을 뿐 질적인 면에서는 담보 상태에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제 과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양계 산업이 막다른 벽에 부딪쳐 되돌아서지 않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 목마른 자들이 파야 할 우물 이기에 몇가지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양계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양계업을 경영하는 기업인과 이에 종사하는 양계인은 양계인으로서의 올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되겠다.

모든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은 기업 성장에 재투자되어 사회에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양계업이 개인의 부를 축척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이용되어져서는 안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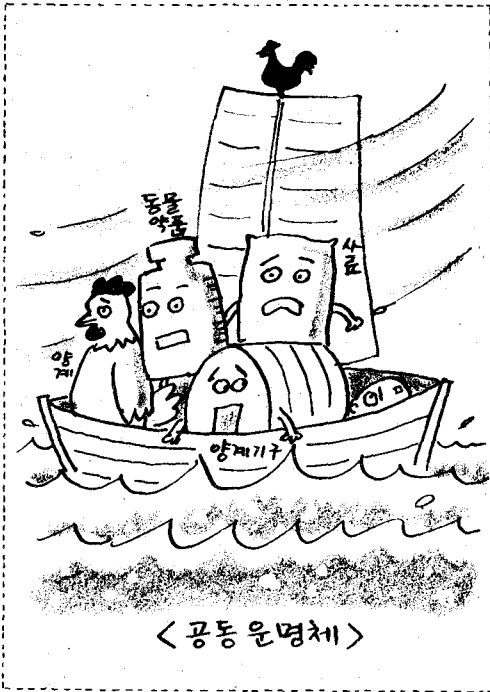
투기식 양제로 어쩌다 돈을 모으면 부동산이나 다른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양계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경영주나 종업원은 양계업이 생활의 터전이 되어 양계산업이 사회에 공헌하여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양계인은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는 시설의 합리화와 사료, 동물약품, 양계 기계 기구 회사들과도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계열 생산 체제에서와 같은 공동 운명체로



서의 일체감이 필요하며 우선 목전의 이익만을 위한 상행위는 이제 자별이 있을 뿐이다.

세계 양계인은 시대 감각에 민감하여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유통구조의 변천 및 정부 시책이나 일반 경제 사정과 주위의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 하여야 하며 새로운 과학 기술 정보의 이용에 최선을 다하는 공부하는 양계인이 되어야 한다.

내제 협회 조합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야 하겠다.

협회나 조합은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기관이며 이를 회원들이 최대한 이용하여야 하겠다.

회원의 참여와 이용이 없을 때 특정업자 몇몇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이 뭉칠 때 더욱 빨리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양계 산업의 기초는 튼튼해 지게 되는 것이다.



meal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수입 판매
전화 : 792-7212 · 7887 엔지니어링